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혁신기업의 선견지명

플로트론 R&D 프로젝트팀 꾸려 공격적 경영에 수출 20% 늘어

동구기업 시장발굴·고객확보 등 대비로 지난해비 매출 확대 전망

씨케이엔터내셔널 판로 개척 코로나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로 지구촌 전체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정면 돌파하려는 기술혁신 기업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선 실적 악화 등으로 감원 바람이 불고 있지만 오히려 인력을 새로 채용하며 공격 경영에 나서는가 하면, 그동안 쌓아온 탄탄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추가 진출을 노리며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노사가 합심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도 포착된다.

10일 이노비즈협회와 관련 기업들에

따르면 플로트론은 최근 지속적인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인력 3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플로트론은 또 추가 연구개발(R&D)을 위한 외부 프로젝트를 별도로 꾸리기도 했다.

한국오발(썬)이란 이름으로 1983년 설립된 플로트론은 초기에 '오발 유량계'란 이름으로 용적식 유량계를 국내 처음으로 출시한 이후 35년 넘는 기간 동안 수 많은 종류의 유량계측기와 관련 시스템을 개발, 출시해 온 중소기업이다.

플로트론은 지난해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아 중진공이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출자로 전환했고, R&D 과제 수행 이후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 투자비와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받는 등 공격적인 경영에 힘입어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20% 늘는 등 순항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레스금형 제작 전문회사인 동구기업. 자동차의 시트, 루프, 와이퍼, 도어 등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과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부품을 제조하는 동구기업은 특히 코로나19로 완성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는 인원 조정이나 급여 삭감을 하지 않기로 하고 휴가 장려 등으로 난국을 헤쳐갔다.

대신 임직원들은 새로운 시장 발굴, 기존 거래처 유지 노력, 잠재 고객 추가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다시 찾아올 '호시절'에 대비했다. 이같은 노력을 한 결과 동구기업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장품 제조사인 씨케이엔터내셔널은 중국으로부터의 원재료 공급 문제로 완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자 유연근무제를 적극 시행했다. 그러면서도 회사는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그사이 씨케이엔터내셔널은 기존 거래처에 더해 일본으로의 수출길을 여는 등 판로를 추가로 개척하기도 했다. 혈액 진단 바이오센서 전문 회사 오상헬스케어는 지난달 18일 미국 FDA로부터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96년 썬인포피아로 첫 발을 내딛은 오상헬스케어는 모든 질병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는 'Technology for Everyone'을 기업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전세계 110여 개국에 해당 측정 바이오센서, 당화혈색소(HbA1c) 측정 바이오센서, 콜레스테롤 측정 바이오센서 등을 수출하고 있다. 심장 질환진단센서, 암진단센서, 원격진단

시스템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던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오상헬스케어의 관련 진단키트가 미국 시장 진출 및 판매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지난달 치러진 4·15 총선 당시 전국의 투표소에서는 휴비디이 개발한 비접촉식 체온계가 유용하게 쓰여졌다.

이노비즈기업인 휴비디은 이미 2009년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개발해 국내뿐 아니라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휴비디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품 수요가 급증하자 연일 공장을 풀가동하며 생산하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조흥래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노비즈 기업들이 지닌 기술혁신은 42.195km를 씹없이 달리는 마라토너의 쾌활함과 같다"면서 "기업의 기술은 경영성과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어려울수록 기업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만큼, 협회는 이노비즈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섬유·숙박·음식·교육서비스업 '치명타'

중기중앙회, 코로나19 피해조사

매출감소, 운영자금 부족 등에 피해 법인세 인하, 고용지원금 확대 필요

중소기업들 가운데 의류·가방·신발 제조업, 숙박·음식점·교육서비스업체가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애로는 내수 침체로 매출이 하락해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1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3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피해실태를 조사, 분석해 1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악영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조업 중에선 섬유제품, 비제조업 중에선 숙박및음식점업이 '100%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제조업 가운데 가죽가방및신발(96.2%), 인쇄기록매체

복제업(98.7%)도 타격이 컸다. 비제조업 중에선 교육서비스업(92.6%),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87%) 등이 악영향을 많이 받았다.

경영상 피해는 제조업의 경우 '내수 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81.2%)'가 가장 심각한 가운데 ▲운영자금부족·자금압박(37.3%) ▲계약물량(수출물량 포함) 취소(19.4%) ▲원자재수급 차질 발생(14.4%) ▲해외바이어 만남 불발·해외마케팅 위축 등 수주기회 축소(14.2%)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에서도 '내수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81.4%)와 '운영자금부족·자금압박'(52.5%)을 피해 1·2순위로 꼽았다. 7.3%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애로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7.6%)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지원 확대(51.8%)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방안을 마련해 과감한 대출유도(41.9%)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22.5%) 등을 가장 필요한 지원책

으로 지목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정책자금 취급은행의 보증과 대출업무 일괄실행,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책을 모르고 있거나 체감을 못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애로사항에 대한 세밀한 지원과 함께 정부의 지원책이 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70.4%), '시중·지방은행의 이차보전대출'(52.2%),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특별대출'(52.1%) 등에 대한 정부지원책은 비교적 잘 알고 있었지만 '소진공 5일 이내 직접대출 비중 확대'(29.4%), '기보 소액자금 전액 보증'(29.5%), '지역신보 신청접수'(31%) 등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승호 기자

새로 나온 책

나쁜경제학 벗어나 '좋은경제학' 지향

극단으로 분열된 사회와 정치, 보편적 기본소득 논쟁, 곤두박질치는 정부에 대한 신뢰, 심화하는 불평등, 기후변화의 위기 등은 오늘날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다. 이 이슈들의 핵심에는 경제학과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이 놓여 있다.

책은 우리가 '나쁜 경제학'으로부터 벗어나 '좋은 경제학'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멕시코에서 물려온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은 나쁜 경제학의 한 예다.

좋은 경제학은 데이터와 사실관계에 기초해 무지와 이데올로기를 누르고 문제를 해결할 효율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그 덕에 살충제를 뿌린 모기장이 아프리카에 지원될 수 있었고 말라리아로 인한 아동 사망이 절반으로 줄게 됐다.

사람들의 눈을 가린 나쁜 경제학은 세계 전역에서 폭발하는 불평등과 사회 균열을 외면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울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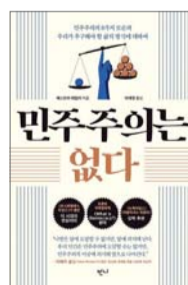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지음 /김승진 옮김/생각의힘

낮추면 일할 유인이 커져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세율 인하가 경제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합의된 사실이다. 승자독식의 세계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 슈퍼 리치들의 소득 증가는 성층권으로 치솟았지만 나머지 99퍼센트 사이의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

648쪽. 2만7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민주주의는 없다

에스트라 테일러 지음/이재경 옮김/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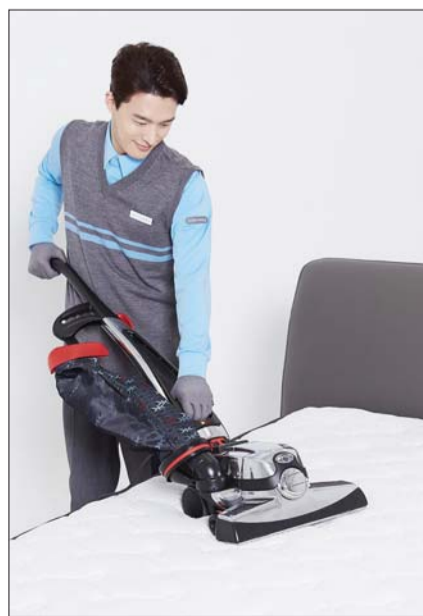
의신들은 코로나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높은 투표율로 선거를 치른 우리나라를 두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 가면 민주주의를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극심한 경쟁과 타인을 향한 혐오, 이기심은 사방에서 목도된다. 책은 부의 불평등, 무한성장의 굴레, 인종주의와 난민, 환경문제 등 민주주의의 민낯을 드러내 알려준다. 472쪽. 2만2000원. /김현정 기자

정복왕 윌리엄

폴 침토르 지음/김승준 옮김/글항아리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인들은 서자라고 해도 아버지 지위와 재산을 적자처럼 물려받는 '덴마크식 풍습 more danico'를 지키고 있었다. 정복왕 윌리엄은 노르망디의 장엄공 로베르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책은 서자 출신 윌리엄이 어떻게 노르망디 공작이 되었으며, 훗날 영국을 정복하고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를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608쪽. 3만원. /김현정 기자



코웨이 1만명에 '매트리스 케어' 무상지원

코웨이는 이달 31일까지 봄철 미세먼지 시즌과 이사철을 맞아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주는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와 '에코탈취서비스'를 1만명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에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매트리스는 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몸에 직접 닿아있는 가구 중 하나로 외부 미세먼지 유입은 물론 자는 동안 배출된 땀과 각질로 오염되기 쉬워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쾌적한 공간을 위해 아이들의 땀 냄새와 반

려동물 등의 생활 냄새가 나는 거실과 방, 쿨리한 냄새가 나는 화장실과 신발장 등의 케어도 필요하다.

코웨이는 깨끗한 실내 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1만명을 추첨해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와 '에코탈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기존 코웨이 고객 뿐만 아니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코웨이 홈페이지 내 제품 카테고리 중 'Sleep Care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